

독립신문 창간 61주년과 편협

1) 편협의 창립정신

1896년 4월 7일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인 '독립신문'이 창간되었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창간 61주년을 맞은 1957년 4월 7일 한국신문편집인협회(韓國新聞編輯人協會)가 창립되었다.

편협은 독립신문의 간행 목적과 체제가 그 이름이 뜻하는 대로 독립적이고 혁신적인 순 우리말 신문으로 발간되었다는 점에 착안, 그 정신을 이어 받아 발족하게 된 것이다. 독립신문은 1896년 4월7일 창간호에는 발음대로 표기하여 '독립신문'으로 발행하다 1896년 5월2일자부터 '독립신문'으로 바꾸게 되었다.

독립신문은 창간사를 통해 발간 목적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히고 자유민주사상을 고취했다.

우리는 첫째 편벽되지 아니한 고로 무슨 당에도 상관이 없고 상하 귀천을 달리 대접 아니하고 모두 조선 사람으로만 알고 조선만 위하여 공평히 인민에게 말할 터인데 우리가 서울 백성만 위할게 아니라 조선 전국 인민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대언하여 주려 함.

정부에서 하시는 일을 백성에게 전할 터이오 백성의 정세를 정부에 전할 터이니

만일 백성이 정부 일을 자세히 알고 정부에서 백성 일을 자세히 아시면 피차에 유익한 일만 있을터이요 불평한 마음과 의심하는 생각이 없어질 터이옵.

우리가 이 신문을 출판하기는 취리 하려는게 아닌고로 값을 헐하도록 하였고 모두 언문으로 쓰기는 남녀 상하 귀천이 모두 보게 함이요 또 귀절을 떼어쓰기는 알아 보기 쉽도록 함이라.

우리는 바른대로만 신문을 할 터인고로 정부 관헌이라도 잘못하는 이 있으면 우리가 말할 터이요 탐관오리들을 알면 세상에 그 사람의 행적을 퍼일터이요 사사 백성이라도 무법 한 일 하는 사람은 우리가 찾아 신문에 설명할 터이옵.

우리는 조선 대군주폐하와 조선 정부와 조선인민을 위하는 사람들인고로 편당 있는 의논이든지 한쪽만 생각코 하는 말은 우리 신문상에 없을 터이옵. (날말은 원문대로, 철자법만 고쳤음)

독립신문의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 신문의 윤리와 신문인의 권위를 다짐하면서 한국신문편집인협회를 창립했다.

2) 편협의 창립배경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젊은 기자들의 모임인 관훈클럽의 절대적인 공로로 햇빛을 볼 수 있었다. 1955년 대구매일신문 테러사건과 최석채(崔錫采)주필의 구속, 1956년의 장면(張勉) 부통령 저격사건 등 자유당 정권의 말기적인 현상과 언론탄압강화를 개탄해온 젊은 기자들이 관훈클럽을 조직하면서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1957년 1월4일 서울 관훈동 84번지의 2 널찍한 한옥에서 최병우(崔秉宇) 박권상(朴權相) 진철수(秦哲洙) 등 젊고 패기 있는 신문기자 18명이 모여 관훈클럽을 창립했다. 이들은 두가지 사업을 목표로 삼았다.

하나는 최초의 민간신문 '독립신문'의 창간을 기념하는 행사이고 또 하나는 한

말 항일지(抗日紙) '대한매일신보' 발행인 배설(裴說 영국인 Ernest T. Bethell)의 묘비명이 일제에 의해 훼손되었으니 이것을 복원하자는 것이었다.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독립신문 창간 61주년을 전후하여 '신문의 날' 을 제정하고 기념행사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1월25일 모임에서 18명의 회원을 33명으로 늘리면서 계획을 구체화시키는데 박차를 가하기로 하였다. 그 첫번째 모임이 3월 4일 서울시청에 있는 시사편찬위원회(市史編纂委員會)에서 이루어졌다. 김인호(金寅昊) 박권상(朴權相) 이정석(李貞錫) 임방현(林芳鉉) 조세형(趙世衝) 진철수(秦哲洙) 최병우(崔秉宇) 김보성 등 당시 임원들이 모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1. 1957년 4월7일이 한국 최초의 민간신문인 '독립신문' 창간 61주년이 되므로 관훈클럽이 주동이 되어 선배 언론인들을 초청하여 신문주간 설정에 관한 토의를 한다.
2. 3월11일 서울시내 각 일간신문 통신사의 주필 편집국장 등 중견 언론인을 신문주간 설정준비위원회 발기인으로 초청한다.
3. 이번 행사의 일체 실무는 관훈클럽이 담당한다.

그리고 준비회의에 초청할 선배 언론인으로 오종식(吳宗植) 유광렬(柳光烈) 유봉영(劉鳳榮) 이관구(李寬求) 주요한(朱耀翰) 홍종인(洪鍾仁) 등 6명을 선정했다.

3) 창립

(1) 1957년 4월 7일 창립총회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1957년 4월 7일 오후 6시 50분 서울 북창동에 있는 공보실 공보관 강당에서 창립 행사를 가졌다. 전국 각 신문사와 통신사 소속 간부 언론인 그리고 당시 유일한 언론인 전문 교육기관인 서울신문학원대표 곽복산(郭福山)교수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임시 의장에 이관구(李寬求 경향신문 주필)를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했다.

순서에 따라 전문 6장 33조로 된 한국신문편집인협회 규약과 신문윤리강령을 통과시키고 규약에 따라 임원을 선출하였는데 초대 회장에 이관구가 선출되었으며 운영위원(위원장 洪鍾仁) 11명, 심의위원(위원장 成仁基) 5명, 감사 2명을 각각 선출하였다.

창립총회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姜永壽(경향신문)	高炳舜(한국일보)	高在旭(동아일보)
高貞勳(조선일보)	高濟經(서울신문)	高興祥(합동통신)
郭福山(서울신문학원)	郭 轍(대전일보)	金光涉(동양통신)
金容甲(경향신문)	金一笑(국제신문)	金長漢(시사신문)
金昌文(동화통신)	金顯濟(한국일보)	金衡均(세계통신)
朴貴松(영남일보)	朴龍相(전북일보)	朴鴻緒(시사통신)
夫琬嫻(조선일보)	徐斗成(영남일보)	石 輔(평화신문)
薛國煥(세계일보)	薛漢俊(경제통신)	成仁基(조선일보)
孫連淳(민주신보)	沈貞燮(동화통신)	安 準(자유신문)
吳宗植(경향신문)	元瓊洙(연합신문)	劉鳳榮(조선일보)
尹 璵(민주신보)	李健赫(한국경제)	李寬求(경향신문)
李相佑(부산일보)	李玉山(경인일보)	李禎樹(대구일보)
李鍾澗(인천신보)	林全煥(삼남일보)	張壽奉(세계통신)
奎弘鎭(서울신문)	鄭寅俊(경향신문)	曹玉煥(전남일보)
趙柱欽(자유민보)	朱耀翰(경향신문)	千寬宇(조선일보)
崔秉宇(코리아타임스)	崔錫采(대구매일)	崔仁植(광주신보)
洪東虎(산업경제)	洪鍾仁(조선일보)	이상 50명 (가나다 순)

(2) 창립과정

3월 6일 관훈클럽 임원들이 이관구 등 선배 언론인 6명을 서울시청 구내식당으로 초청하여 이틀 전의 결정사항을 전하고 '신문의 날' 기념 행사를 주도할 편집인협회 같은 조직이 있어야 되겠다고 건의했다.

이러한 건의는 선배 언론인들에 의해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여져 지극히 순조롭게 진행돼나갔다. 관훈클럽에서는 일을 분담하여 각 신문사의 주필 편집국장 등 언론계 중진을 방문하여 늦어도 4월초까지는 간부 언론인들로 구성된 새로운 조직을 탄생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뛰어다녔다.

이러한 노력의 보람이 있어 3월 11일에는 서울 북창동에 있는 공보관에서 '신문주간 창설준비위원회' 구성을 발의했으며 의장에 이관구를 선임하였다. 이날 발기인회에 언론인과 대학 교수 31명이 참석했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姜永壽(경향신문)	高 英(대한통신)	高興祥(합동통신)
金光涉(동양통신)	金永鎭(서울신문)	金榮哲(언론인)
金允津(대구일보)	金乙漢(언론인)	徐石鎭(언론인)
徐廷億(대한공론)	成仁基(조선일보)	宋壽安(경향매일)
沈貞燮(동화통신)	安 準(자유신문)	嚴太燮(상공일보)
吳宗植(한국일보)	柳光烈(한국일보)	劉鳳榮(조선일보)
李健赫(언론인)	李寬求(경향신문)	李相魯(동아일보)
李源赫(합동통신)	李殷相(언론인)	林根洙(서울신문)
張道斌(언론인)	鄭雲德(언론인)	千寬宇(조선일보)
崔秉宇(코리아타임스)	崔 垞(홍익대교수)	洪以燮(연대교수)
洪鍾仁(조선일보)	(가나다 순)	

이날 발기인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하였다.

1. 신문주간은 매년 4월 7일을 전후한 1주일간으로 정하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 준비위원회는 서울의 일간 신문 통신사 각 2명, 지방의 일간신문 각 1명, 신문 공로자, 신문학자, 기타 관계자 11명 등 약 60명을 선정한다.
2. 준비위원회 집행부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집행위원은 준비위원 가운데서 서울 시내 각 언론사 1명씩으로 구성하며 이관구를 위원장으로 한다.
 3. '신문주간' 행사를 계기로 '신문인협회' (가칭) 구성을 집행위원회가 검토한다.

현역 언론인 이외의 집행위원 11명은 다음과 같다.

곽복산(郭福山 홍익대학교수) 김을한(金乙漢 전 언론인) 박종화(朴鍾和 문충회장) 오재경(吳在璟 공보실장) 이운용(李運鎔 서울방송국장) 이은상(李殷相 전 영남일보 사장) 이헌구(李軒求) 장무빈(張道斌 전 민중일보사장) 주요한(朱耀翰 언론인) 최준(崔竣 홍익대학교수) 홍이섭(洪以燮 연세대 교수)

① 제1차 집행위원회 (3.13)

3월 13일 서울 을지로 입구 합동통신사 중역실에서 제1차 집행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했다.

1. 집행위원회 부서의 결정.
 - 총무 오종식(吳宗植) 심정섭(沈貞燮) 임근수(林根洙) 최병우(崔秉宇)
 - 재정 이원혁(李源赫) 유재명(柳在明)
 - 기획 홍종인(洪鍾仁) 고제경(高濟經) 김광섭(金光涉) 설국환(薛國煥) 원경수(元瓊洙)
2.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은 시내 각 일간신문 통신사에서 모금한다.
3. 지방 각 신문사에 '신문주간' 행사의 진행 상황을 통고한다.
4. '신문편집인협회' (가칭) 구성 안을 기획위원회에서 작성한다.

이날 개최된 제1차 집행위원회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김광섭(金光涉) 김영진(金永鎭) 박홍서(朴鴻緒) 서정억(徐廷億) 설국환(薛國煥)

심정섭(沈貞燮) 오종식(吳宗植) 유재명(柳在明) 이관구(李寬求) 이상로(李相魯) 이원혁(李源赫) 임근수(林根洙) 조주희(趙周熙) 채중현(蔡重鉉) 최병우(崔秉宇) 홍종인(洪鍾仁)

② 제 2차 집행위원회 (3. 17)

3월 17일 합동통신사 중역실에서 10명의 집행위원이 참석하여 제2차 집행위원회를 열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했다.

1. 제1차 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신문주간' 행사를 기획위원이 성안한 대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 '독립신문' 창간 61주년 기념식을 4월 8일 상오 10시 명동 시립극장에서 거행한다.
 - △ 4월 8일 하오 5시 30분~ 7시 30분 반도호텔에서 언론사 간부, 언론관계자, 내외인사 300명을 초청 카테일 파티를 갖는다.
 - △ 신문인의 본질적 윤리를 바탕으로 자유와 책임의 규범을 밝히기 위해 '신문윤리강령' (가칭)을 선포한다.
 - △ '신문의 책임과 자유의 한계' '신문용어의 문제' 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 △ 신문에 관한 강연회를 개최한다.
 - △ 각 신문사는 '신문주간' 중에 독자적 기획편집과 준비된 표어를 게재한다.
 - △ '독립신문' 61주년 기념식과 행사의 의미를 해설하는 소책자를 간행한다.
2. 기획위원이 성안한 '신문편집인협회' (가칭) 조직 방침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 회원은 사(社)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하고 각분야를 망라하기 보다 범위를 좁혀 일간신문 통신사의 현역 주필 편집국장을 중심으로 이와 동등한 직책에 있는 자, 기타 관계 인사로 한다.
 - △ 이 조직은 4월 8일 기념식 경과보고에서 선포하도록 그전에 정식 발족한다.
 - △ 본회는 전국조직을 목표로 하되 지역단위로 자주적인 조직을 가진 후, 전국 연합체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단 시일관계로 4월 8일 이전에 조직될 서울의 조직체는 '한국신문편집인협회' (가칭) 로 전국적 성격의 명칭을 쓰기로 한다.

△ '편협' (가칭) 규약 및 '신문윤리강령' (가칭)에 관한 사항은 기획위원회에 일임한다.

3.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기념행사를 위한 경비는 다음 신문사 및 외신계약 통신사가 균등부담하도록 한다. 경제통신 경향신문 국도신문 동아일보 동양통신 동화통신 산업경제신문 상공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세계통신 시사통신 연합신문 자유신문 조선일보 코리아타임스 코리아리퍼블릭 평화신문 한국일보 합동통신(이상 20개사, 가나다 순)

△ 기념행사에 관한 연락은 서울특별시 을지로 1가 합동통신사내 '신문주간 준비위원회' 로 한다.

제2차 집행위원회 참석자는 김광섭(金光涉) 박홍서(朴鴻緒) 심정섭(沈貞燮) 오종식(吳宗植) 이관구(李寬求) 이상로(李相魯) 이원혁(李源赫) 임근수(林根洙) 최병우(崔秉宇) 홍종인(洪鍾仁) 등 10명 이었다.

③ 제 3차 집행위원회 (3. 21)

3월 21일 합동통신사 중역실에서 집행위원회 제3차 회의가 소집됐다. 이날 참석한 집행위원은 김광섭(金光涉) 박홍서(朴鴻緒) 석보(石輔) 설국환(薛國煥) 심정섭(沈貞燮) 안준(安準) 원경수(元瓊洙) 유재명(柳在明) 이관구(李寬求) 이원혁(李源赫) 장수봉(張壽奉) 채중현(蔡重鉉) 최병우(崔秉宇) 홍종인(洪鍾仁) 등 14명이었다.

이날 결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신문' 창간 61주년 기념 행사는 4월 8일 이전에 결정 예정인 한국신문편집인 협회(가칭) 명의로 주최한다.
2.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칭) 발기인회 예비회의를 3월 29일 공보관에서 개최하되 초청 범위는 서울시내 일간신문 통신사의 주필 편집국장 및 이와 동등한 직책에 있는 자로 한다. 의제는 신문주간 준비위원회 집행위원회 가 기초한 '편협' (가칭) 규약 및 '신문윤리강령' (가칭)을 발기인회에 부의한다.

이 모임은 실질적으로 신문주간 준비위원회 집행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었으며 3월 29일에 개최된 집행위원회는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칭)로 개편, 발전적 해체를 하게 됐다.

④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칭) 발기예비회

제4차 집행위원회는 예정대로 3월 29일 서울 공보관에서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칭) 발기인회 예비회의로 이어졌다.

고제경(高濟經) 김광섭(金光涉) 김을한(金乙漢) 김창문(金昌文) 석보(石輔) 설국환(薛國煥) 설한준(薛漢俊) 심정섭(沈貞燮) 원경수(元瓊洙) 유재명(柳在明) 이관구(李寬求) 이상로(李相魯) 임근수(林根洙) 최병우(崔秉宇) 최병욱(崔炳郁) 최상덕(崔象德) 최준(崔竣) 홍종인(洪鍾仁) 등 18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칭) 발기인회를 소집하기까지의 경과보고에 이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했다.

1. '편협' (가칭)의 회원자격, 기능, 기관, 임원 등에 관한 의견을 종합 토의하고 규약안의 기초를 설국환(薛國煥 세계일보)위원에게 위촉한다.
2. '신문주간 준비위원회' 집행위원회가 천관우(千寬宇 조선일보) 위원에게 기초하도록 위촉하여 작성한 '신문윤리강령' (가칭) 안을 배부받아 이를 다음 회의에 부의한다.

이렇게 하여 발기인회 예비회의를 마치고 4월 1일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칭) 발기위원회 개최로 이어졌다.

⑤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칭) 발기위원회(4.1)

'신문주간'을 제정하자는 데에서부터 시작된 '한국신문편집인협회' (가칭) 발기위원회가 4월 1일 공보관에서 개최되었다. 3월 4일 젊은 기자들이 서울시청 시사편찬위

원회 사무실에서 모여 구체적으로 활동을 개시한지 만 26일만의 결실이었다.

고제경(高濟經) 고흥상(高興祥) 김광섭(金光涉) 김봉진(金奉鎭) 남상일(南相一) 박홍서(朴鴻緒) 석보(石輔) 설국환(薛國煥) 성인기(成仁基) 심정섭(沈貞燮) 원경수(元瓊洙) 이관구(李寬求) 임근수(林根洙) 정인준(鄭寅俊) 천관우(千寬宇) 최병우(崔秉宇) 홍종인(洪鍾仁) 등 17명의 발기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관구(李寬求) 사회로 진행 된 회의에서 '신문윤리강령' 안 및 '한국신문편집인협회 규약' 안을 토의하고 별도로 소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구수정을 일임하였는데 이날 발기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편협 규약안' 심의소위원회 위원으로 이관구(李寬求) 설국환(薛國煥) 천관우(千寬宇)를 선출 구성하고 자구수정을 일임한다.
2.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칭) 창립총회를 4월 7일에 소집하고 그 절차는 신문주간 준비위원회 집행위원회 총무 위원에게 일임한다.
3. 신문주간 준비위원회 집행위원회는 4월 8일에 거행될 '독립신문' 창간 61주년 기념식의 준비상황을 보고한다.

이렇게 매듭지어진 발기위원회는 4월 7일에 열린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창립총회로 이어져 굳건한 창립의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다.